

강진 쌀귀리·쌀보리, 대형 유통업체 입점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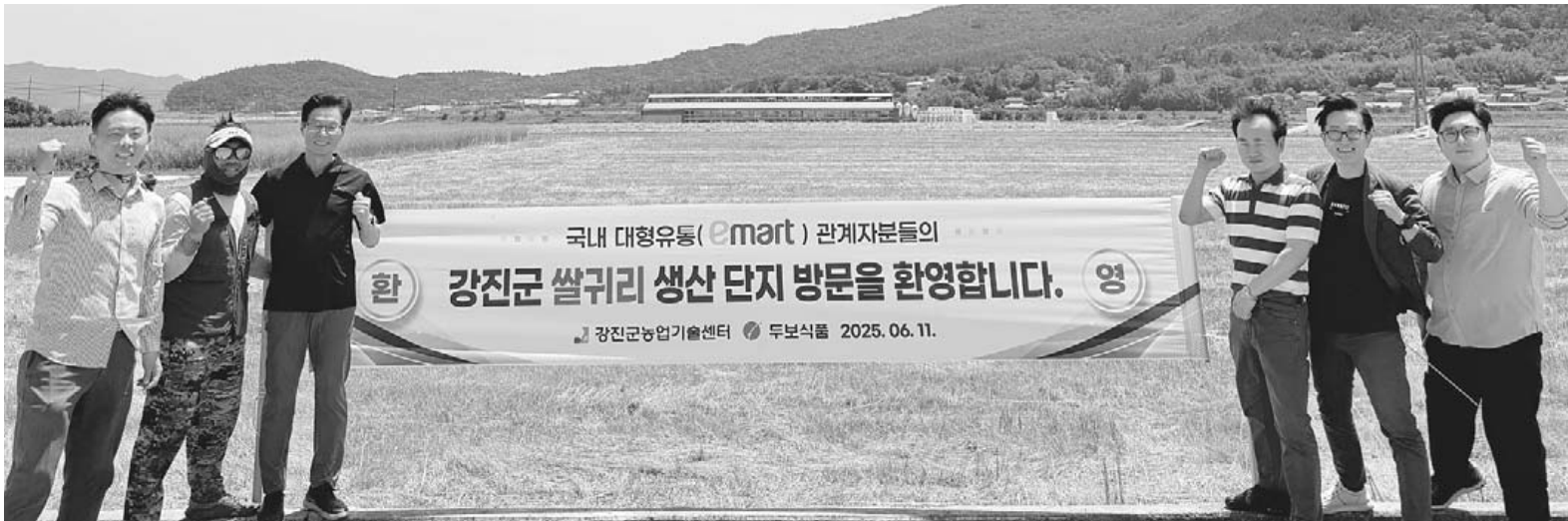
이마트·쿠팡 등 관계자 현장 방문
우수한 품위·수량 모두 뛰어나 ‘호평’

강진산 쌀귀리와 쌀보리가 수확기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할인점과 쇼핑몰 담당자들이 최근 맥류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살펴보기 위해 강진 수확 현장을 방문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18년 동안 강진군 식량작물 농업인들과 상호 신뢰 속에 계약재배를 진행 중인 ㈜두보식품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마트는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로 강진산 쌀귀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농산물 입점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으며 노브랜드라는 자체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최근 대규모 농산물 매입과 할인판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농산물 라인업을 강화하고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 관계자들이 최근 강진 쌀귀리와 쌀보리 수확 현장을 찾았다.

〈강진군 제공〉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이번 방문에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강진군 쌀귀리·쌀보리의 역사, 재배현황 및 특장점 등을 판매자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브리핑을 시작, 이어 함께 배석한 재배농가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강진을 학명리 쌀귀리 단지와 마량면 원포리 일대의 쌀보리 단지 일대에서 현장 확인이

이뤄졌고,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파종-월동기 기상이변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진 쌀귀리와 쌀보리 원료곡을 확인하며 연이어 호평을 내놓았다.

실제로 강진군은 맥류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지닌 지역으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특히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의 재배 여건이 타지역과 비교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농가들의 재배기술력과 종자 관리 능력이 매우 높아 양질의 원료곡이 생산돼 그 품질 역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행정 기관의 관심도와 농업인들의 열정이 타 시·군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강진군의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해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고객 반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며 지속적인 맥류 안정생산을 당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산업을 고품질 생산으로 중요하지만,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군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인명피해 제로화”…나주,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

폭염·풍수해 등…유관기관 공조 강화

나주시가 여름철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관·군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지역 사전 정비, 피해 예방 인프라 확충, 대응 인력 조직 운영 등 실질적 재난 대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이화실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주재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현황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장기 폭염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사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 부서를 비롯해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KT나주시사, 나주교육지원청, 육군 제832부대 제3대대 등



나주시가 지난 17일 시청 이화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7개 유관기관과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7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상황 시 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나주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29개소, 홍수취약지역 6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106개소, 급경사지 95개소 등 재난 취약지를 사전 점검하고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폭염 대응에도 빈틈이 없다. 나주시는 현재 그늘막 222개소, 무더위쉼터 618개소를 운영

중이며 무더위쉼터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버스 승강장에는 냉온열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시설을 마련했다.

윤병태 시장은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정환 기자

영암읍에 ‘티켓투더문’ 뉴트로 감성 숙소 개업

郡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결실

음식점·굿즈샵 협업도 예정

영암군 영암읍에 감성 숙소 ‘티켓투더문’(사진)이 문을 열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티켓투더문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영암형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영암읍 매일시장 옆 숙박업소 제1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17일 영업을 시작했다.

티켓투더문은 과거 영암읍 번성기의 산증인인 제1제방의 역사는 간직하되, 심플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더해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는 뉴트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프리미엄 숙박 공간을 지향하는 이 숙박업소의 1층은 공용라운지, 주방, 로비, 2층은 투룸 1개

를 포함한 7개의 객실로 이뤄져 있다. 티켓투더문의 개업과 함께 지난해 영암형 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 가게가 모두 영업에 들어갔다.

영암군청 옆에 개업한 굿즈숍 ‘언제나봄날’, 로컬푸드 음식점 ‘수북수북’과 티켓투더문은, 앞으로 협업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지역 축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영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여행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들의 로컬크리에이터 활동이 영암읍 상권과 영암 관광, 지역 브랜드 강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티켓투더문보다 먼저 영업에 나선 굿즈숍 언제나봄날은 영암의 향과 감성을 담은 방향제, 키링 등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며, 영암군민에게 지역 브랜드 굿즈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로컬푸드 음식점 수북수북은 영암 토마토, 고구마, 무화과 등을 재료로 샐러드와 파스타를 선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지역주민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영암형 모델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영암에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기존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존하며 성공신화를 써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해남군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25-30일 체험·전시 다채…교구 제공도

해남군은 19일 “오는 25-30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과학관을 비롯한 과학문화 체험시설을 접

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동형 전시·체험 프로그램이다.

행사장에는 약 40여종의 이동형 전시물이 설치되며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은 이동형 과학기술 작동체험물과 VR·AR 콘텐츠를 통해 상상 속 미래기술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작동형 체험 전시물과 미디어 콘

텐츠 등이 탑재된 과학 차량(싸이퀵)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과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실습 키트와 교육 교구 등 다양한 교육재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주말에는 과학마술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단체 예약 및 프로그램 문의는 한국과학관협회(042-882-7915)로 하면 된다. /해남=박필용 기자

고경욱 목포시의원, 생활밀착형 조례 3건 발의 ‘눈길’

이스포츠·청결지킴이·반값관광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산·원산·용해동·사진)이 이스포츠 진흥, 청결지킴이 운영, 반값관광 지원 등 생활밀착형 조례 3건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1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경욱 의원이 제38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기 중 ‘목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목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통해 목포시민의 여가와 친목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설의 구축·운영 ▲관련 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이스포츠 대회는 꿈과 기회가 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청소년 진로와 청년 일자리 확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 이스포츠 활성화 정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동

네 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임가·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포시 반값관광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반값관광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경욱 의원은 연산·원산·용해동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 스마트주차장 구축…“불법 주차 해소”

철마광장-아리랑사거리 구간…54면 제공

진도군은 19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2023년부터 남문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홍보와 안내를 이어간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운영을 시작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 불편과 과태료 부과 문제로 일부 민원이 있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는 긍정적인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주차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상가 방문객이 늘고, 장기 주차 문제도 크게 해소됐다.

남문로공영주차장은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아리랑사거리 구간에 조성됐으며 진도읍 중심상가 지역에 총 54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 실시간 주차 관리로 주차 효율을 높이고 불법주차와 장기 주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차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용자 간 배려 부족이 주차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며 “양보하는 주차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무안, 복지 안전 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복지안전협의체 발대식

무안군은 19일 “전날 화산백련지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복지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발대식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일로읍·삼향읍 복지안전협의체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8회 무안연꽃축제를 앞두고 ‘푸른동행 Clean 무안’ 범군민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자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사업 협력기관인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해 지역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으며, 초당대학교 호텔조리 베이커리학과에서 커피파자를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 /무안=김상호 기자